

安·劉, '통합투표' 첫날 한자리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양당 간 통합을 공식화한 이후 처음으로 만난다.

특히 바른정당의 통합 찬반을 묻는 국민의당 전(全)당원투표 시행 첫 날 두 대표가 자리를 함께 하며 이들이 내용을 메시지에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

안 대표의 경우 통합 반대파와의 갈등이 극에 치달은 상황에서 통합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당원들을 직접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 유 대표 도 국민의당과의 통합 의지를 재차 나타내며 당대표직까지 내건 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바른정당 원외위원장 모임인 '원외위원장협의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안 대표를 초청한다고 26일 밝혔다. 유 대표도 이 행사에 참석한다.

오늘 바른정당 원외위원장 모임에 안철수 참석

내일까지 국민의당 통합 투표...메시지 '관심'

'통합과 개혁의 정치, 어떻게 열 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합 추진의 목적과 시점 ▲통합 이후 지도체제 등 정당 운영방식 ▲중도 확장 전략 ▲통합 신당의 개혁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권오을 원외위원장협의회 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당의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안보관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볼겠다"며 "당원의 뜻이 통합 반대로 확인될 경우 그 또한 친근의 무게로 받아들여 당대표직을 사퇴할 것은 물론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27~28일 케이보팅(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29~30일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로 전당원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31일 오후 1시 발표한다.

호남 중진들을 주축으로 한 통합 반대파는 투표 보이콧 운동을 전개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6일 전당원투표 무효를 위한 가짜본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의 갈등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총회 등을 통해 '개혁통합'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지만 안 대표의 승부수가 통합 불가 쪽으로 귀결되면 그동안의 노력과 내년 지방선거 전략 등이 모두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온 유 대표는 안 대표의 기자회견 다음날인 21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저와 바른정당은 안 대표의 국민의당 개혁 결단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개혁 연대의 성공을 위해 바른정당 내 교섭장구를 즉각 만들어 국민의당과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기자회견에서 류여해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무감사로 인한 당협위원장 사퇴 의결과 조직강화특위 구성 등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류여해 "엄마 내버리고 첩들인 아버지, 큰딸로서 막을수밖에"

최근 당무 감사에서 기준미달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은 26일 홍준표 대표를 향해 "엄마를 내버리고 첩을 들여 첩 말만 들으며 혼을 놓은 아버지 보는 마음이다. 큰딸로서 막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조강지처를 버리고 첩이 주인공을 하는 한국당에 대한 보수우파의 지지자 시선은 싸늘하나 대표는 그것조차 느끼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류 최고위원은 "홍 대표는 당을 배신했던 바른정당(복합 의원들)에 당 주요 보직을 모두 맡겼다"며 "이들은 본인들은 살겠다고 탄핵에 동조하고 우리 당에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류여해, 정신분열증적 해당 행위 멈추라"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일동은 26일 최근 당무감사에서 기준미달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류여해 최고위원의 돌발 행동과 관련해 "류여해씨는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기행과 정신분열증적인 해당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송영 한국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류여해씨의 천방지축 경거망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부대변인은 "기이한 행동과 퍼포먼스가 대중의 관심을 끌자 천

그는 "그런 사람들이 급이환한 것처럼 당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 탄핵과정에서 당 향한 모든 비난을 묵묵히 감수하며 당을 지킨 사람들은 뒷전에 물러나 팽 당했다"며 "오히려 애당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은 징계하려 칼을 미구 휘두르고 있다"고 울먹였다.

류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까지 홍 대표가 추진하는 사당화 방지를 위해 투쟁해 왔다"며 "대표는 진박 청산을 내세우나 뒤로는 사당화를 적극 추진해왔고 당 주요 당직은 친홍(친홍준표) 인사로 가득 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무 감사로 인한 당협위원장 사퇴 의결과 조직강화특위 구성 등은 전면 무효"라며 "사당화 방지 및 공천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분간을 하지 못한 채 소시오페이스 처럼 정신분열증적이고 정치 파탄적 기행을 일삼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한국당을 마치 공산당에 빗대어 비이성적인 막말을 던치는 대로 내뱉고 있다"라며 "당 일 끝에 먹칠하는 행동을 즉시 멈추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의 기이한 언행은 역사적으로 당무감사위원회가 전원 일자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고 윤리위원회(윤리위) 제명을 권고한 결정이 매우 적절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安, 자격 없었다"

"투표 거부해 당 지키고 보수적폐야합 분쇄하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지킴이 나쁜투표거부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원투표 거부와 안철수 대표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바른정당 통합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에 반대하는 나쁜투표거부국민운동본부는 26일 "우리 당을 보수적폐 복원에 동원하려는 안 대표는 대표로서, 당원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26일 낮 1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쁜투표를 거부해서 국민의당을 지키고 보수적폐야합을 분쇄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운동본부는 "우리는 당을 보수적폐로 끌고 가려는 안 대표를 규탄한다"며 "안 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말하지만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스

지역구감리·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하태경 "한국당 의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화"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6일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으로부터 바른정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느냐는 문의 전화가 두 통 왔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당이 되면 통합 효과가 제일 큰 계수도권이나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불안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성적을 토대로 해서 한국당이 꼴등을 하면 한국당은 100% 깨진다"며 "그러니까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미리 보험을 들어 놓고 싶은게 나중에 잘 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남경필 경기지사 탈당설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하 최고위원은 "원 지사는 제가 직접 만나 얘기도 했는데 절대 안 나간다"며 "민약원 지사가 한국당에 간다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 지사는 당선 가능성이 어디가 더 높을지에 대해 사실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 통합한 정당이 남 지사에게 뭔가 해줘야 하는 건 맞다. 그건 통합 정당이 한국당보다 지지를 더블스코어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 최고위원은 "명분이나 실리 측면에서 통합정당과 같이 가는 게 남 지사에게도 훨씬 이롭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무료상담환영"